

‘일 중독’에 빠진 한국 사회 여유로운 삶 찾기 위한 3가지 조건

여유롭게 살 권리

강수철 지음



도시를 등지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귀촌을 하거나 아예 산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 갈수록 세상이 복잡해지는 탓이다. TV에서도 야생의 삶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산 속에서 혼자 살면서 병을 고치거나 새 삶을 찾았다는 이야기만을 다루는 TV 프로그램도 인기가 있다.

강수철 고려대 교수의 ‘여유롭게 살 권리’는 몸과 마음이 지친 사회엔 희망이 없다고 단언한다. 저자는 지난 1989년부터 5년 동안 독일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일들을 들려준다. 그곳에서 만난 유럽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여유다.

또한 정년에 대한 태도도 다르다. 유럽인들은 정

년 단축을 요구했지만, 한국인은 연장을 원하고 심지어 정년을 아예 없애자는 이들도 있다.

저자는 일중독을 넘어 돈 중독, 성장중독에 빠진 한국 사회를 성찰하고 여유롭게 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인의 일중독을 이야기할 때, 1997년 말 벌어닥친 IMF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사회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집단 트라우마를 남겼다.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는 일자리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일하자’는 집단 정서에 빠졌다. 문제는 이런 일중독이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일중독 외에 알

코올이나, 담배, 게임,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에도 쉽게 빠져들며 심지어 여가를 즐기는 것도 중독적이다. 짧은 여행 동안 너무 많은 곳을 다녀오려고 산에 가더라도 반드시 정상을 밟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저자는 여유롭게 사는 것은 권리라고 주장한다.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세 가지를 권유한다.

우선 땅의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땅은 재산 증식의 수단인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토대다. 이런 관점에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땅이 우리 모두의 공동 재산이라는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 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며 무엇보다 경쟁 지상주의, 성과주의를 바꿀 수 있



한국 사회는 지독한 일중독에 빠져 있고, 치열한 경쟁으로 현대인은 지쳐 있다. 사진은 광주지역 한 여고에서 쉬는 시간 맨손 체조를 하는 여고생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는 방안이다. 법정 노동시간 및 단체협약 노동시간의 단계적이고 과감한 단축이 절실하다.

끝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분야의 해결도 필요하다. 주거, 교육, 의료 문제를 사회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 소득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한다.

개인의 성찰도 필요하다. 화폐 중독적인 삶을 성찰하고 생활협동조합, 지역모임 등의 풀뿌리 단체

에 적극 참여해 개인과 사회를 바꿔나가야 한다. 실제, 스웨덴의 경우 4000개 이상의 지역발전 그룹과 15만개 이상의 비정부·비영리 단체가 있고, 30만개 이상의 학습 동아리가 있다.

저자는 “시민 스스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봄·1만6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유럽의 문화는 살롱·카페에서 나왔다

‘담론의 탄생’

이광주 지음



“나에게 플로르로 가는 길은 4년 동안 자유로 가는 길이었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언급한 플로르는 파리의 카페다. 이곳에서 그는 보부아르와 함께 희곡, 소설, 철학서 등 많은 책을 집필했다. 자코메티, 앙드레 말로, 롤랑 바르트, 시몬 시노레 역시 플로르의 단골이었다.

인근의 카페 ‘되 마고’ 역시 랭보, 피카소, 오스카 와일드 등 예술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서양에서 카페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다. 수많은 예술 작품이 잉태되고 철학적 사유가 펼쳐지는 담론의 장소다.

오랫동안 유럽의 살롱과 카페의 문화사, 차와 커피 문화, 책 문화 등에 관한 책을 써온 원로 서양사학자 이광주 인제대 명예교수가 ‘담론의 탄생-유럽의 살롱과 클럽과 카페 그 자유로운 풍경’을 펴냈다.

유럽 사회의 배경을 자율성, 개방성, 다양성으로 설명하는 저자는 유럽을 다른 문명권과 구별짓는 특징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연동하는 지혜롭고 반듯한 담론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그런 담

론을 잉태한 장소로 살롱과 카페에 주목한다. 1부는 휴머니즘적 교양이 탄생한 공간인 살롱과 클럽을 다룬다. 17~18세기 프랑스 귀부인들의 살롱을 비롯해 독일의 유대인 살롱, 오스트리아의 빈 살롱, 영국 신사들의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2부는 ‘도시 속의 열린 살롱’인 카페가 주체다. 이스탄불, 베네치아, 런던, 파리, 베를린, 빈 등 세계 각국의 카페 문화를 들여다 봤다.

2005년에 출간된 ‘편력’의 개정판인 ‘나의 유럽 나의 편력-젊은 날 내 영혼의 거장들’도 함께 나왔다. 저자가 젊은 시절부터 영향을 받았던 몽테뉴, 괴테, 베토벤, 초바이크, 클림트 등 역사 인물 14명을 다룬 책으로 개정판에는 자신의 생을 걸고 히틀러와 싸웠던 독일의 여배우 디트리히와 역사가 마이네케에 대한 글을 새롭게 실었다.

<한길사·1만7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여행의 위대한 순간, 그래도 살아있으라=300일 일하고 65일 세계를 순례하는 경제인의 메시지. 아시아, 아프리카 편. 오지를 중심으로 세계 140여 개국 이상을 여행한 도용복. 70이 넘는 지금은 ‘오지 전문 강사’로 유명하다. 이번 책에서는 저자가 직접 체험하면서 찍은 사진이 돋보인다. 사진속 가난한 아이들은 함박미소를 머금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버려진 아이들에게 아직 희망이, 미래가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다. <멘토프레스·1만6000원>

▲브라보! 시니어 라이프=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선진국 시니어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그들도 이전 세대들보다 더 오랜 기간 노동을 해야 한다. 사회안정망이 제대로 갖춰진 나라도,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의미가 있는 일을 찾아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인생



2막을 즐겁게 살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삶을 사는 해외 시니어들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 정리했다. <이마·1만3800원>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사다=일진왜란부터 태평양전쟁까지 동아시아 오백년사를 담은 책. 해양과 대륙의 충돌로 해석하는 일진왜란은 한반도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이후 동아시아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동아시아를 보는 일반적인 통념과 전혀 다른 결론을 보여준다. 대륙 일변의 역사에서 벗어나 해양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본다면, 오늘날까지 연속하는 해양과 대륙의 패권 대결을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치·1만6000원>



▲시간 사용법=어느 날 우연히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을 얻게 된 소년이 멋진 미래를 꿈꾸며 한껏 떠들었다. 뜻하지 않은 사고와 맞닥뜨리고 슬한 시행착오를 거친



▲진격의 대학교=사회학자 오찬호가 이번에 들고 나온 문제는 ‘기업화된 대학’이다. 사설 대학의 기업화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도 대학을 학문 탐구와 지성의 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의 대학이 반독재 투쟁과 민주주의 수호, 시민 정신 구현의 중심점 역할을 했다면 현재의 대학은 대규모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또 하나의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책에서는 현재 대학의 실상을 가감 없이 공개한다. <문학동네·1만4500원>



▲심장에 가까운 말=독특한 발성과 어법으로 개성적이고 활달한 시 세계를 펼쳐



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글 공간이 마련돼 있다. <담푸스·1만2000원>

▲마차를 탄 나의 왕자님=이해와 배려에 대해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놓은 학교 드라마. 마일로 초등학교에 전학 온 풀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농구팀의 에이스 선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스마일맨 풀은 초고속 휠체어에 앉은 진짜 왕자님이고 엠마를 비롯한 친구들은 풀의 진정한 매력이 듬뿍 빠진다. <씨드북·9800원>

▲마차를 탄 나의 왕자님=이해와 배려에 대해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놓은 학교 드라마. 마일로 초등학교에 전학 온 풀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농구팀의 에이스 선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스마일맨 풀은 초고속 휠체어에 앉은 진짜 왕자님이고 엠마를 비롯한 친구들은 풀의 진정한 매력이 듬뿍 빠진다. <씨드북·9800원>

어린이 책

▲나도 안 굶고 싶단 말이야!=아토피를 앓고 있는 친구들이 용감하게 자신의 병을 물리치도록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림책. 주인공 연우가 좋아하는 치킨도 피자도 못 먹고, 친구랑 놀기도 어렵지만 또 다른 아토피 친구 미소와 함께 용감하게 ‘아토피 괴물’을 물리치고 씩씩해지는 이야기다. <책피·1만500원>



▲시간 사용법=어느 날 우연히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을 얻게 된 소년이 멋진 미래를 꿈꾸며 한껏 떠들었다. 뜻하지 않은 사고와 맞닥뜨리고 슬한 시행착오를 거친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직접)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서구 벽진동 대지 724㎡ 매 4억9천
- 서구 마북동 대지 701㎡ 10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682㎡ 9.8억(신설도로접)
- 광산구 삼도동 1층주거지역 전 6,900㎡ 19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직접)
- 담양군 월산면 집종지 29,000㎡ 14억5천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NAVER **간접입찰** 대비플래워 **즉채바로**

대비플래워

죽마화원3년 근조화원3년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회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렌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보훈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홍 김서연" 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 (주)박배성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